

# 【 한국사 】

1. 다음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나라는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같은 씨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 …(중략)…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별로 노비와 소·말을 부과하는데, 이를 책화라 한다.

- ① 사출도가 존재하였다.
- ②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 ③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거행하였다.
- ④ 소도라고 불린 신성 구역이 존재하였다.

2. 자료의 제도를 시행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벌찬					
2	이 찬					
3	잡 찬					
4	파진찬					
5	대아찬					
6	아 찬					
7	일길찬					
8	사 찬					
9	급벌찬					
10	대나마					
11	나 마					
12	대 사					
13	사 지					
14	길 사					
15	대 오					
16	소 오					
17	조 위					
등급 관등명		공복	진골	6 두품	5 두품	4 두품
관 등			골 품			

- 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②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운영하였다.
- ③ 3성 6부의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추었다.
- ④ 천리장성을 쌓아 당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3. 다음 교서를 내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과인이 위로는 하늘과 땅의 도움을 받고 아래로는 조상의 신령스러운 돌보심 덕분에 흠톱 등의 악이 쌓이고 죄가 가득 차서 그 음모가 탄로 나고 말았다. 이는 곧 사람과 신이 함께 배척하는 바요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될 수 없는 바이니, 도의를 범하고 풍속을 훼손함에 있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을 것이다.

- ① 전국을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 ② 황룡사를 건립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③ 발해의 유민을 대대적으로 포용하였다.
- ④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4. 다음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가)께서는 나라를 통일한 뒤에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이므로 일이 번거로워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건대, 향호가 매양 공무를 맹자하여 백성을 침해하여 횡포를 부리어 백성이 견디지 못하니, 청컨대 외관을 두도록 하십시오.

- ① 후대의 왕들에게 훈요 10조를 남겼다.
- ② 12개의 주요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③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이자겸의 난을 수습하고 민생을 안정시켰다.

5. 다음 담판의 결과로 옳은 것은?

소손녕 : 고려는 옛 신라 땅에서 나라를 세웠고,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의 소유인데 고려가 차지하였다. 또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송을 섬기고 있어 출병하였다.

서 희 : 그렇지 않다. 우리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하였다. 오히려 거란의 동경이 우리 국경 안에 있다. 그리고 압록강 근처도 우리 땅인데 현재 여진이 차지하여 길을 막아 거란과 국교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진을 쫓아내고 길을 통하면 국교를 통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 ②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였다.
- ③ 군신 관계 요구를 수용하였다.
- ④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6. 다음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은/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 선(禪)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당시 승려들의 타락상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명리(名利)를 버리고 산림에 은거하여 정혜(定慧)에 힘쓰자.”라고 주장하였다.

- ① 세속 5계를 만들었다.
- ②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 ③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였다.
- ④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7. 다음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 이래 중국에서 역서(曆書)를 수입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위치가 달라 중국의 역서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웠고, 역법(曆法) 자체도 완벽하지 못하여 오차가 많았다. 이에 왕은 정인지, 정초, 정흠지 등에게 명하여 우리 고유의 역법서(曆法書)를 만들도록 명하였다.

- ①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였다.
- ② 금속활자인 갑인자를 주조하였다.
- ③ 사병을 혁파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 ④ 집현전을 계승하여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 8. 다음 밑줄 친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어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기미년(1619) 오랑캐를 정벌할 때는 은밀히 강홍립을 시켜 동태를 보아 행동하게 하였다. …(중략)… 우리를 오랑캐와 같은 금수가 되게 하였으니, 어찌 그 통분함을 다 말할 수 있겠는가.

- 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②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토벌하였다.
- ③ 여진을 정벌하고 4군 6진을 설치하였다.
- ④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로 대처하였다.

## 9. 다음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은 광해군 즉위년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먼저 경기도에서 시험 삼아 실시되었다. 그 뒤 찬반양론이 매우 심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인조 원년에는 강원도에, 17세기 중엽에는 충청·전라·경상도 순으로 확대되었다. 숙종 34년에는 황해도까지 실시하여 드디어 전국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00년 이란 기간이 걸린 것은 양반 지주들이 심하게 반대하여 이들의 이해를 배려하면서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 ①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 ②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풍흉을 고려하여 토지세를 거두었다.
- ④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 10. 다음 (가), (나) 인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 학문들을 접하면서 더욱 영역이 확대되고 깊이가 심화되었고, 많은 제자를 길러 학파를 형성하였다. 『성호사설』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 (나) 서얼 출신으로 이덕무, 유득공 등과 친분을 쌓고, 채제공의 수행원으로 청에 다녀왔으며 수레, 배의 이용과 신분 차별의 타파를 주장하였다. 『북학의』를 저술하였다.

### <보기>

- ㄱ. (가)-매매할 수 없는 토지를 통한 자영농 육성을 주장하였다.
- ㄴ. (가)-토지를 공동 경작하여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 ㄷ. (나)-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공업 진흥을 주장하였다.
- ㄹ. (나)-「양반전」과 「호질」 등의 한문 소설을 통해 양반을 비판하였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 11. 다음 사건의 직접적 원인으로 옳은 것은?

수백 명에 달하는 조선군이 전사한 전투는 모두 종식되고, 1시 정각에 킴벌리 부대장이 연락 장교를 기함으로 파견, 로저스에게 전승 소식을 보고하였다. 광성보를 점령하였다가 작약도로 철수하였다. 어재연 등이 이끄는 조선군 수비대는 격렬한 항전을 벌였지만 패배하고 말았다.

- ① 오페르트의 통상 수교 요구가 거절당하였다.
- ②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 ③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하였다.
- ④ 평양의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다.

12. 다음 조약의 체결 배경으로 옳은 것은?

제5조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국에 오는 미국 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제14조 본 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경우 이와 같은 권리나 특혜는 미국 관민과 상민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

- |            |               |
|------------|---------------|
| ① 병인양요의 발생 | ② 아관파천의 전개    |
| ③ 조선책략의 유포 | ④ 조선의 중립화론 대두 |

13. 다음 내용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1. 청에 잡혀간 흥선 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고,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혜례를 폐지한다.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3. 대신과 참찬은 매일 합문 안의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결하고 반포한다.

(가)	(나)	(다)	(라)
강화도 조약	임오 군란	거문도 사건	갑오 개혁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4. 다음 강령을 발표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하지 말라.
2. 충효를 다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3. 일본 오랑캐를 쫓아 버리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하라.
4.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애라.

- ① 흥선 대원군은 청으로 압송되었다.
- ② 의회를 설립하고 내정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③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고 근대 학교를 세웠다.
- ④ 집강소를 설치하여 부패한 행정을 개혁하였다.

15. 다음 (가)와 (나) 사이에 발생한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만주에 출병한 일본군은 청산리 대첩을 전후해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간도의 한인 마을에 들어가 우리 동포를 무차별 학살하고 집과 학교, 교회 등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다.

(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동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민정 조직과 독립군의 훈련 및 작전을 담당하는 군정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 |          |              |
|----------|--------------|
| ① 만주 사변  | ② 자유시 참변     |
| ③ 중·일 전쟁 | ④ 국가 총동원법 제정 |

16.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식량 배급제가 실시되어 우리 가족들 모두 배급 통장을 가지고 있었고, 애국반을 통해 한 반에 한두 켤레씩 제공된 고무신은 차례를 정해 지급받았다. 힘겨운 생활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언니는 여자 정신 근로령에 따라 군수 공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옆집 오빠는 징용되어 사할린으로 간 지 1년이 되었는데 생사도 알 길이 없다고 한다.

- ①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는 관리
- ②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 ③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는 교원
- ④ 조선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헌병 경찰

17. 다음 글을 쓴 역사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 ① 진단학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 ②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였다.
- ③ 『한국독립운동지역사』를 저술하였다.
- ④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였다.

18. 자료에 제시된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원회 개요〉

- 결성 : 조선 건국 동맹을 기반으로 결성
- 활동 : 전국에 지부 설치, 치안대 조직
- 해체 : 좌익 세력이 주도권 장악, 우익 세력의 이탈,  
조선 인민 공화국 선포 후 해체

- 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 ② 5·10 총선거 실시를 결정하였다.
- ③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 ④ 여운형, 안재홍 등이 중심 인물이었다.

19.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절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2.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曲解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에 대한 모독이다.
5.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 ① 대통령의 하야 발표를 이끌어냈다.
- ② 6·29 선언이 발표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을 막고자 하였다.
- ④ 시위대가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맞섰다.

20.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회담의 결과로 옳은 것은?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체 안과 북측의 낫은 단계의 연방체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②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③ 경의선 철도 복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 ④ 최초의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